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11월 24일 (제1281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겔 럼

다시 도전하기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등등, 많은 사람들이 어깨가 축 처져 나에게 위로를 구한다. 그때 나는 위로 대신 이렇게 말한다. “맞아. 당신은 그 분야에 실패했어. 그 여자와의 결혼생활에 실패했고, 이번 사업에 실패했어. 올해 대학에 실패했지. 그러나 그렇게 축 처질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 분야에만, 그 여자와의 결혼에만, 그 대학에만 실패한 것이지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야.”

우리는 실패에 대한 다른 시선이 필요하다. 어떤 분야의 실패는 다른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고, 그 분야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지,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물론 실패가 달가울 수 없고, 실패가 축하받을 일도 아니다. 그러나 실패에 주눅들 필요도, 손가락질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 그것은 삶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림을 그리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그림 전체를 망쳤다고 찢어버려야 할까? 한 해 농사를 망쳤다고 농사꾼 일생이 망한 건가?

인생은 일모작이 아니라 다모작이다. 다시 일어나면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다. 나는 실제로 재혼해서 잘 사는 사람, 대학 대신 창업해서 오토로서 멋진 인생을 사는 젊은이, 업종을 변경해서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을 너무 많이 본다.

실패가 여러분을 실패시키지 못하도록 해라. 무슨 말이나? 한 부분의 실패가 삶 전체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다윗은 인생의 실패자인가, 성공자인가? 그는 분명히 성공자다. 그렇다면 다윗은 사는 동안 한 번의 실패도 없어서 성공자인가? 아니다. 그도 실패했다. 그러나 다시 깨닫고 일어나 도전했기에 우리는 그를 성공자로 기억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아서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 도전한 자들이다.

넘어지지 않고 걷는 자는 없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가룟 유다나 사울처럼 한 번의 실패를 인생 전체의 실패로 만들지 말자.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다시 도전하면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일어나 다시 도전하라.

이 땅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크라이나의 슬라바 목사님이 소천하신 후 목사님이 즐겨 부르시는 이 찬양이 많은 성도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이 대목을 반복해서 부르는 동안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자주, 많이 카

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11:23~26).

목사님은 추수감사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각자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여 각자 거둔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지금까지 지

하고 불쌍합니까?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향방을 모르고 아등바등 살다가 일장춘몽(一場春夢)으로 사라져가는 허무한 삶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삶과 죽음으로 헤어져도 영으로 다시 만날 소망의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애쓰고 수고하고 참고 인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니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니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살전5:16~18).



추수감사예배(11월 17일, KBS스포츠월드 아레나홀)

메라에 잡힌다. 오죽하면 이시대 목사님은 이 찬양을 부르기 어렵다고 하신다. 일찍 가족을 떠나보낸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 먼저 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안타깝다는 거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럼에도 이 땅이 끝이 아니요, 천국에 대한 굳건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을 인내하며 단단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축복한다.

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함께 먹고 마셨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

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올 한해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지금까지 살아오며 진정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거두고 있는 지, 주 앞에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각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부자로 살 겁니까, 부자로 죽을 겁니까? 자신에겐 풍성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자들이여, 주 앞에 서는 날 무어라 말할 겁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허무

또한 그래서 나는 또 저 멀리 멕시코로 떠납니다. 이 나이에도 그 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이것만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열매인 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다고 만족하며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천국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이여,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고 주 앞에 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갈6:17)을 가지고 주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이초석 목사 멕시코 몬테레이 집회

11월 26일 ~ 12월 5일, 집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딤후1:12)

수직적, 수평적 감사는 만사형통의 열쇠다

70이 넘도록 살아보니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감 씨를 심으면 감이 나고, 가시나무 씨를 심으면 가시나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영경귀를 심고 무화과를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7:16).

그렇다면 감사의 씨를 뿌리면 어찌 될까요? 당연히 감사의 열매가 열리지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실 때 문둥병자 열 명이 고쳐달라고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공물을 베푸사 모두를 고치셨는데, 그중 사마리아인 하나만이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례했습니다(눅17:15). 예수님은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눅17:19)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감사했다니 육체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약속받았습니다.

감사란 은혜를 아는 자의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면 당연히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50:23). 정말 그런지 역대하 20장을 볼까요.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대하20:21) 하며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요? 적군들 사이에 자중지란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과 창으로 찢러 자멸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감사를 드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위력입니다.

저는 올해 목회 40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감사했다.” 사실 제가 걸어온 길은 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야 같은 험준한 길인지라 원망을 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교계로부터의 제명을 받았을 때도 교회에 돌아와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감사했고, 마스크의 매도에 맞대응하

라고 했을 때 맞대응 대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의 씨를 뿌렸더니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계 복음화의 기수로 세워주셔서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우편배달부가 배달을 하면서 오가는 길에 꽃씨를 뿌렸더니 한 해가 지나고 나니 지나가는 길이 온통 꽃길이 되었다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니 그것이 열매가 맺히고, 삶이 꽃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침 받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린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갔는지 있느냐?”



총회장 이초석 목사

나 . ”

그들이 어디 갔는지 궁금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이는 감사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신 책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그 아홉이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대속하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문둥병에서 고침 받은 것과는 비교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감사를 했습니까? 고침을 받고도 감사 없이 돌아가버린 아홉 문둥이는 아닐까요?

더욱이 부족하기만 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를 또 어찌한단니까? 우리를 주의 종으로, 장로로, 안내위원으로, 조장과 구역장으로, 성가대원으로 써주셨는데 사마리아인처럼 소리 높여 감사해야 옳지 않겠습니까(딤후1:12).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살후2:13).

하나님은 감사받기를 기뻐하사, “내가 노략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풀과 굵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시69:30~31) 하십니다. 하나님은 황소를 드리는 자보다 감사하는 성도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은 깨달는 자의 고백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

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십니다. 저도 제자들 중에 길러준 은혜에 감사하며 찾아올 때 정말 기쁩니다. 그가 사들고 온 선물보다 찾아온 그의 발걸음이, 그의 마음이 더욱 기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매번 힘들다, 춥다, 덥다, 먹을 게 없다 하면서 불평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롬1:21). 늘 이렇게 불평의 씨를 뿌리니 불평거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삽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엡5:19~20).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수직적 감사라면, 내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수평적 감사입니다. 가까이 있는 내 부모, 형제요, 그다음은 이웃이요, 회사 동료와 상사, 학교의 스승,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에게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직적 감사만 잘한 것이 아니라 수평적 감사도 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롬16:3~4)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감사에 인색하지 말고, 감사를 입으로, 행동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에게 “정말, 고마워. 넉넉지도 않은 살림인데 잘 살아줘서.”라고 해보세요. 남편에게도 “힘들지? 그래도 용기 잃지 않고 살아줘서 고마워.”라고 해보세요. 가정에 꽃길이 열린다니까요. 애들에게도 “고맙다. 잘 커줘서.” 이러면 나쁜 길로 가고 떠밀어도 나쁜 길 안 간다니까요. 아랫사람에게 감사한다고 하면 큰일 납니까? 인격이 땅에 떨어집니까? 저는 직원들이나 제가 기른 제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로 쓰고 있는 체육관 직원들에게도 항상 감사하다고 합니다. 감사는 인격의 척도입니다. 감사하면 존경을 받게 되고, 그들이 광고매체가 되어 우리 행위를 보고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도 됩니다.

감사란 인격의 척도요 인생의 방부제다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8)는 말씀은 감사에 조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감사했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칠 배가 뜨거운 풀무 불에 던져질 위기에서도 감사했으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아들 압살롬을 피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라고 감사했고, 바울이 그가 주리고 헐벗고 매 맞으며 세상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받으면서도 늘 감사했던 것처럼 수직적 감사가 이어질 때, 그리고 주변에 늘 감사를 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편 91편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찬양과 경배:

남의 인생을 살지 맙시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수능 시험일이 다가와 수험생들이 기도를 받으러 오면, ‘평강 가운데 시험 잘 치르게 해주시고, 배우고 익힌 것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공부한 것이 있어야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지, 목사가 기도해준다고 공부하지도 않은 게 떠오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하시는 분입니다.’라는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의 모든 일에 기적을 일으키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지만 믿음으로 나가서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이었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요행수를 바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와 노력이라는 두 날개를 함께 펼치지 않으면 결코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자기 실력은 부족한데 명문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은 소망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며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 적성에도 맞지 않는데 재수하고 삼수를 해서 명문대학 인기학과에 들어간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서 졸업 후 몇 년을 무위도식하며 시험에 매달리다 일곱 번을 떨어지고 여덟 번 만에 붙어 꿈에도 그리던 공무원이 되었는데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직서를 내었다는 일화는 가슴 아픈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즐겁고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참된 보람을 얻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씨가 좋아도 토양이 맞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중화요리 전문가 이연복 셰프는 초등학교 6학년을 중퇴하고 식당에서 굿은일을 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평생을 종사하다 보니 그 분야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 대학교의 석좌교수가 되었고, 그의 명성이 높아지자 자신의 사업장에도 1년 동안 예약이 다 차 있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우물을 계속 파다 보니 부와 명예를 모두 다 얻게 된 것입니다. 고학력 실업자로 부모님 품을 벗어나지 못하는 켄거루족이나, 은퇴한 부모님의 연금을 축내는 ‘빨대족’들이 부끄러운 것이지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내 적성이나 실력에 맞춰 내가 하고 싶은 공부와 일을 선택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화평 목사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 교회에는 나이 여든의 권사님이 계시다. 총회장 목사님과 40년 함께하셨고, 헌금위원으로도 40년을 헌신하며 교회에 귀감이 되시는 신앙의 어른이다. 그런데 그런 권사님이 많이 편찮으시다. 며칠 전 병원에 가서 뵙고 왔는데 나를 못 알아보실 만큼 약해지셔서 마음이 아팠다. 인사를 나누기도 쉽지 않아 얼른 기도해드리고 싶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 기도해드리려고 왔어요. 기도할게요.” 방금까지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는데 기도하겠다는 말에 권사님은 즉시로 눈을 감으신다.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진다. 당신 자녀들보다 젊은 전도사이지만 나를 신뢰하지 않으시면 절대 보이실 수 없는 모습 이리라. 의식은 또렷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심에, 말씀도 못하고 누워계시지만, 그 마음만은

예수님으로 꽉 채워져 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다.

우리 권사님은 평생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을 소유하셨다. 육체가 곤고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니 더욱 그렇다. 혹시 기회가 또 없을지 몰라 정성을 담아 기도해드리고 나니 권사님이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드셨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관데 귀한 성도님의 인생 마지막 시간을 축복해드릴 자격을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권사님을 부르시면, 이것이 권사님을 위한 마지막 기도가 된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성도를 보내드릴 수는 없기에 권사님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복 있는 종이 되기를 더욱 힘쓰며 주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어야겠다. 김혜리 교육전도사



:: 소망의 언덕 ::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만큼이나 큰 화제가 된 사람이 있다. 바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다. 그는 세계 1위 부호로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슈퍼팩(정치자금 모금단체)을 설립하고, 약 1,800억 원을 선거 운동에 쏟아부으면서 트럼프를 도왔다. 마침내 트럼프의 승리가 확정되자 그의 기업 테슬라의 주가는 5일 연속 상승해 50% 가까이 뛰었고, 시가총액은 무려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한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자신은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 낙점되기까지 했다. 만약 그가 트럼프의 경쟁 상대를 지지했거나 양쪽 모두를 지지하든지 거부하든지 했다면 그에게 이런 보상들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 마디로 줄을 잘 선 것이다.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기 전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24:15). 하나님을 섬길지, 다른 신을 섬길지 양자택일(兩者擇一)하라는 것

이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롯과 롯은 이름이 모음 한 곳 차이지만, 그들의 운명은 너무나도 달랐다. 롯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떠나라 할 때 보기에 물덴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다가 아내와 전 재산을 잃고 그야말로 쪽박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갈등하게 될 모압과 암몬족속의 조상이 된다. 그러나 롯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자신을 떠나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며 그녀를 쫓아가 마침내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동일하게 결단을 촉구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계3:15).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예수를 영접하고도, 성령을 받고도 계속 이쪽과 저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은가? 줄을 똑바로 서지 않으면 맨 뒤로 밀려나든지 쫓겨날 수도 있다. 하나님 편과 마귀 편, 예수님 편과 세상 편, 성령의 편과 육체의 편,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신앙에 중간은 없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신혁주 전도사

수험생들에게 교육 목사가

어김없이 찾아온 수능. 수요일예배 후에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 어김없이 모였단다. 영상에 가득 채워진 너희들의 이름을 보며, 나는 괜한 설렘과 함께 몽글한 감정을 느낀다.

혹시 TV에서 바둑기사들이 대결하는 것을 본 적 있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던지... 한 수를 두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좀이 쑤서 지켜보기 힘들 정도였단다. 그런데 그건 바둑을 잘 모르는 내 눈에만 그런 것이고, 실제로 대국 중인 기사들은 치열한 머리싸움을 하는 것이란다. 지금 이 돌을 여기에 두면 상대방은 어떻게 나올 것이며, 그런 상대방의 대응에 또다시 나는 어떻게 돌을 치고 나갈 것인가? 혹시 내가 생각한 대로 상대방이 따라오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각각의 상황을 ‘수’라고 하는데, 고수는 몇 수를 앞서서 내다 본다. 또한 그 내다보이는 수에 대한 대응책이 많아서 여러 가지 상황에 당황치 않고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하수는 한 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그 수가 적으니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다가 덜컥 상대방의 덫에 걸려들곤 하지.

인생이라는 바둑판에서 우리는 때로 한 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단다. 심지어 잘못된 정도가 아주 치명적이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충수를 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킬 ‘묘수’를 가지고 계시며 심지어 그 수가 아주 많으신 분이란다.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해 난처한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수’,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수’, 애굽 병사와 바다 사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수’,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평화통일 위한 기도성회라는 수’,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에게 ‘예수의 십자가라는 수’

수능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너희는 이미 충분히 잘해왔단다.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을 거야. 앞으로 너희가 선택하는 어떤 길이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혜로 함께하실 것이다. 우리 삶을 위해 아름다운 수를 예비하신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 기도하자~! 이현승 목사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믿음이란?

한 달 전쯤,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면 평소보다 최소 2시간은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평소에도 취침 시간이 이른 편이 아니기에 피곤하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렇다고 취침 시간을 앞당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기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마음은 있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

다. 달았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고 신뢰하는 대상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고 행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행동할 때 그분을 진짜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가끔 마음이 공허하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말씀을 새겨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 모두

악하다'(창6:5)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은 피곤하고 자고 싶지만,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심으로(막1:35)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저도 제 생각을 접고 새벽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막상 해보니 피곤할 거란 예상과 달리 오히려 상쾌하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출근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늘었고, 하루가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마음속 갈등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부정과 불신, 염려, 근심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전소희

so2eej@naver.com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1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아엘리는 어릴 때부터 여성스러운 여자였으나,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습니다. 중학생 때 외모로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한 후, 우울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사권 트랜스젠더 친구에게 우울증의 원인이 잘못된 성 때문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학교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학교 상담사는 아엘리에게 성전환을 장려하고, 학교 측에서도 LGBT(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단체와 연결하여 성전환으로 이끌었으며, 가족에게는 숨길 것을 권했습니다. 아엘리의 어머니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성전환 수술이 딸의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에 회의감을 표하고, 성전환 수술 대신 딸의 정신 건강 상담 치료를 끈질기게 요청했으나 차단당했습니다. 아동복지국은 딸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하고 아엘리를 위탁 가정에 맡긴 후, 어머니와 일주일에 한 시간만 만나도록 허용했는데, 성전환이나 신약에 대해 언급할 경우, 면접권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아엘리는 위탁 가정에서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정신 건강이 더 악화되었고, 19세가 되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크리스천 제빵사는 동성 결혼식과 성전환을 기념하는 케이

크 제작을 거부했다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역전했지만, 수년간 악의적인 소송과 협박에 온 가족이 시달려야 했습니다. 영국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남성은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6:9~10)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가 혐오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고소한 동성애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취하되었지만, 2년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트랜스젠더의 여자 화장실 사용에 대한 토론 중 한 소년이 성경적 신앙에 따라 성별은 남자와 여자뿐이라고 밝히고, 남학생(트랜스젠더)의 여자 화장실 사용 반대 발언을 했다가 정학 처분뿐만 아니라 경찰에 체포까지 당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의 명칭만 다를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기원이 같아서 내용도 유사한데, 법이 시행되는 국가에서 보이는 현상 역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한국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수십 가지의 개별적 차별 금지법이 존재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추가로 제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성적 지향(동성애, 양성애, 제3의 성 등), 성 정체성(트랜스젠더 등)을 대상으로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려는 진짜 목적은 '사회적 성'을 법제화하여, 남녀로 구분되는 생물학적 성별을 기초로 한 기존 가치체계를 해체하고, '사회적 성'을 기초로 한 가치체계로 대체하는 사상, 즉 젠더 이데올로기가 모든 국가기관과 법과 제도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성'은 종류가 수십 가지가 넘으며,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남녀 이외의 제3의 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1:27)라는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8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의 유사한 판결 2년 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나왔고, 현재 미국 29개의 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이 한번 통과되고 나면, 그것을 돌이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정명관

v-777@naver.com

:: 빛이 되리라 ::

기함과 때

과거에 책을 출간해 보려고 애쓰던 때가 있었다. 출판사 이메일 주소를 구해서 작성한 원고를 첨부해 보내며 여러 곳에 출간 제의를 했다. 출판사가 제법 많아서 200군데가 넘어 보였다. '이 중에 적어도 한 곳에서는 선택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열 곳, 스무 곳씩 꾸준히 이메일을 보냈다. 때마침 기도원집회가 있어서 기도원에서 기도도 열심히 했다. 하나님 뜻이면 좋은 곳에서 꼭 연락이 오게 해달라고 하며 말이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결과는 차츰쳤다. 200군데 넘는 출판사 중 단 한 곳에서도 내 원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한동안 낙심도 되고 좌절감도 느꼈지만, 왠지 모를 오기도 생겼다. '그래, 부족한 것 잘 보완해서 다음엔 반드시 뚫어내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른 여러 길을 모색했다. 블로그나 브런치에 글도 쓰고 유튜브 방송도 하면서 점차 팔로워들을 늘려갔다. 어느덧 나를 강력히 지지해주는 팬들이 제법 생겨났다. 그렇게 2년이 지났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출판사에 문을 두드렸다. 블로그/브런치/유튜브의 내 팬층을 어필하면서 말이다. 그러자 세 군데 출판사에서 자기와 같이하자며 경쟁적으로 제안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곳 중 한 곳과 출간 계약을 했고 마침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2년 전의 나는 원고만 있었지 설령 그때 책이 나왔다고 해도 그 책을 팔아낼 스스로의 역량이 없었다. 그래서 2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나를 더 준비시키셨다. 지금 와서 보면 고통스러웠지만 꼭 필요했던 훈련이었다. 내 때와 하나님 때가 다르고, 나에게 가장 좋은 때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다. 당시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보이는 거다. 법사에 기함과 때가 있는 법.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꼭 잊지 말고, 그때를 기다리며 꾸준히 준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자.

장명훈 집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유튜브 생방송(노량진 교육관)

문의 02. 533. 9191